

가성비 앞세운 추석 선물...유통가 판매실적 '쑥'

광주신세계, 정육 200% ↑ ...이마트 배·사과 기획 물량 대폭 증가 롯데백화점 광주점, 목포 먹갈치 3마리 세트 등 실속 세트 인기 홈플러스 증가에 소포장·건강 식품 강세...정기 구독권도 호응

광주 주요 백화점들의 올 추석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올해도 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송 상품과 1인 가구용 위한 소포장 선물이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추석 선물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정육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 추석 판매 기간보다 200% 증가했다. 가공 건강기능 식품은 같은 기간 36% 늘었다.

광주신세계는 1인 가구를 겨냥해 추석 선물세트를 소포장으로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1.5~2kg이던 정육 세트는 1kg 안팎에 맞췄다. 사과·배 등 과일 상품은 기존 12개 들어가던 것과 달리 6개로 줄였다.

새싹보리 짬 부세굴비(5미)와 신세계 알뜰전복 세트(8미) 등도 마련했다.

상품 구성이 간소화되면서 가격대도 5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광주지역 3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살 정도로 1인 가구 비중이 부쩍 늘어 이를 겨냥한 '실속 세트' 구성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해에 이어 '명절 선물세트 구독권'을 운영하며 1인 가구 수요를 잡았다.

이 구독권을 사용하면 한 번에 다 쓰지 못하는 선물을 원하는 때에 매장을 찾아 작은 용량으로 찾아갈 수 있다.

이 점포의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추석 선물본 판매 실적은 전년보다 28.3% 증가했다.

주류 선물 매출은 49.6% 증가했고,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42.1% 뛰었다. 청과(36.6%)와 정육(20.5%)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롯데백화점은 '호남지역 대표 상품전'을 따로 판촉물에 실으면서 1.2kg '함평천지한우 명가 4호 세트'를 마련했다. 목포 먹갈치 3마리 들어가는 세트를 50개 한정으로 선보이기도 한다. 영광 범성포에서 나온 10미 실속 굴비 세트도 7만원에 내놓았다.

광주지역 3개 이마트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26일 동안 추석 선물 사전예약 판매 실적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추석 때보다 3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20만원 이상 고급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보다 20.9% 증가했다.

홈플러스 상품 매출이 83% 증가했고, 배·사과 선물세트는 78.4%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냉장한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1% 늘어나 한우 전체 매출선정률 45%를 앞질렀다.

이마트는 대표적인 배 주산지인 나주 배 선물세트 기획 물량을 지난해 1만개에서 올해 4만개로 대폭 늘렸다. 전북 장수군에서 매입하는 사과 물량은 올해 200t으로, 전년의 2배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8일 (주)광주신세계 직원이 1~2인 가구에 맞춘 '소포장 추석 선물'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주방 인테리어에 딱...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 출시

'키친핏' 디자인 새롭게 추가 냉장고와 최대 135ℓ 사용 가능

삼성전자는 8일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 신제품(사진)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별도의 공사 없이 주방 가구에 딱 맞춰 '빌트인 룩'을 구현해 주는 '키친핏' 디자인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비스포크 냉장고와 함께 빌트인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고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두 제품을 조합해 최대 135ℓ의 대용량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제품에는 다양한 식재료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비스포크 인사이드' 솔루션을 강화했다.

와인(15도), 음료(-1도), 간편식(-20도) 등 용도에 따라 적정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제품 하칸의 변온실에는 '멀티 트레이'를 추가해 식재료를 더욱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총 4.5ℓ 크기의 '곡물 디스펜서' (별매)도 추가했다.

신제품은 4도어로 키친 핏(420ℓ)과 프리스탠딩(490, 586ℓ) 타입으로 출시되며, 비스포크 냉장고와 동일하게 총 22가지의 패널이 제공된다.

360개 색상으로 구성된 '프리즘 컬러'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출고가는 기능과 도어 패널 사양에 따라 키친핏 타입이 254만9000~364만9000원, 프리스탠딩 타입이 224만9000~599만9000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5만원 쓰면 250만원" 경품 행사 편의점 국민지원금 특수 노린다

이마트24, 프리미엄 과일 판매 CU, 생필품·캔맥주 등 할인 행사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에 편의점이 포함되면서 손님을 모시기 위한 다양한 판촉이 펼쳐지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24는 9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사인머스켓과 머스크멜론, 애플망고 등 평소 편의점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프리미엄 과일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9월 한 달간 할인행사 품목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여 종 늘린 1940여 종의 상품에 대해 '덤증정'을 보인다. 특히 간편식품과 일상용품 등 생필품 행사 품목을 30% 이상 늘려 장보기 수요 잡기에 나섰다.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족' 증가에 따라 주류 행사 상품도 지난 해 220여 종에서 290여종으로 30% 이상 늘렸다. 인기 맥주 3종은 이달 말까지 4캔 1만원에 판매한다.

또 자체적으로 390원짜리 봉지라면, 200원 도사락김 등 50여종에 달하는 '민생시리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 이내 누적 사용액이 국민지원금 액수인 25만원 이상을 쓰는 고객

을 대상으로 '리워드' 명목으로 최고 10배에 달하는 250만원 상품권을 주는 경품 행사도 한다. 모바일 앱 바코드를 찍은 국민지원금 사용 고객(1만원 이상)에게는 1000원 할인권을 준다.

유창식 이마트24 마케팅팀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고객이 가까운 이마트24가맹점을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운영 상품을 늘리고, 9월 한 달간 간편 먹거리, 생필품 할인 행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CU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식음료와 생필품 품목을 확대했다.

행사 대상 상품은 음료와 과자, 가정간편식, 주류, 생활용품 등 1500여 종에 달한다.

점포 1곳당 판매하는 상품이 300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이 행사에 해당한다고 CU 측은 설명했다.

덮밥을 4개 사면 거의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바' 아이스크림을 5개 사면 1개당 400원에 판매한다. 치약, 샴푸 및 린스, 바디워시, 세탁세제, 여성용품 등 주요 생필품 20여 개 품목도 평균 할인율 50%를 내세웠다.

캔맥주를 4개 살 때 1만원에 판매하고 20여 개 품목은 9000원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양주 15종은 20%, 와인 30여 종은 20~30%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추석 선물 고객도 겨냥해 10만원 미만 상품 370여 종을 마련했다. 9일까지 행사카드로 구매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